

호남언론 태자리... 5·18 역사의 현장 '전일빌딩 245' 복합문화센터 문 연다

광주일보 자리잡았던 공간
 헬기사격 탄흔 245개 잔적
 4월 3일 개관 시민 품으로



호남언론의 태 자리이자 5.18의 상징인 전일빌딩이 '전일빌딩245'라는 이름으로 오는 4월3일 시민들에게 개방된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호남언론의 태 자리이자 5·18민주화운동 등 광주역사의 현장상을 지켜온 전일빌딩(광주일보 옛 사옥)이 오는 4월 새 이름, 새 모습으로 재탄생한다.

광주시는 "민선 7기들이 시작한 전일빌딩 리모델링 공사를 이달말까지 마무리하고, 오는 4월 3일 개관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광주시는 사업비 484억원을 들여 전일빌딩을 매입·리모델링했으며, 이름도 '전일빌딩245'로 정했다. 개관식 행사는 오는 4월 3~4일 이틀간으로 예정돼 있다.

전일빌딩245는 5·18사적지 28호인 전일빌딩의 건물 도로명 주소가 광주 금남로 245이고, 5·18 당시 헬기 사격으로 건물 10층과 외벽에 박힌 총탄 자국이 245개라는 점을 녹여낸 것이다.

한때 광주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랜드마크 역할을 담당했던 전일빌딩은 광주의 아픈 역사만큼이나 힘든 세월을 보내기도 했다.

1968년 7층짜리 건물로 준공된 이후 세 차례 증축 과정을 거쳐 대지면적 2778㎡, 연면적 1만9321㎡, 지하 1층, 지상 10층으로 확장됐지만, 잦은 증축과 노후화 등이 겹치면서 도심 속 흉물로 전락하는 아픔을 겪었다. 민선 5기 때는 문화재단 개관에 맞춰 건물을 허물고 주차공원화하는 이른바 '시한부 판정'을 받기도 했다. 다행히 이후 5·18민주화운동의 상징이자, 호남언론의 역사를 상징하는 건물이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기사화됐다.

실제 전일빌딩과 5·18민주화운동의 인연은 깊다. 1980년 5월 21일 오후 1시 전일빌딩 앞에서 계엄군이 시민에게 집단

발포해 60여 명이 다치거나 숨졌고, 5월 27일 새벽에는 계엄군이 시민군 진압작전을 벌인 장소이기 때문이다. 특히 전두환 씨의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재판 중 중요 증거물로 꼽히는 헬기사격 흔적도 전일빌딩 곳곳에 남아있다. 만약 주차장으로 바뀌었다더라면, 전씨를 법정에서 세운 중요 증거 등 역사적 흔적이 모두 사라졌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리모

델링 사업이 지닌 의미는 각별하다. 전일빌딩은 호남의 언론 역사와도 함께 벌인 장소이기 때문이다. 특히 전두환 씨의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재판 중 중요 증거물로 꼽히는 헬기사격 흔적도 전일빌딩 곳곳에 남아있다. 만약 주차장으로 바뀌었다더라면, 전씨를 법정에서 세운 중요 증거 등 역사적 흔적이 모두 사라졌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리모

델링 사업이 지닌 의미는 각별하다. 전일빌딩은 호남의 언론 역사와도 함께 벌인 장소이기 때문이다. 특히 전두환 씨의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재판 중 중요 증거물로 꼽히는 헬기사격 흔적도 전일빌딩 곳곳에 남아있다. 만약 주차장으로 바뀌었다더라면, 전씨를 법정에서 세운 중요 증거 등 역사적 흔적이 모두 사라졌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리모

델링 사업이 지닌 의미는 각별하다. 전일빌딩은 호남의 언론 역사와도 함께 벌인 장소이기 때문이다. 특히 전두환 씨의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재판 중 중요 증거물로 꼽히는 헬기사격 흔적도 전일빌딩 곳곳에 남아있다. 만약 주차장으로 바뀌었다더라면, 전씨를 법정에서 세운 중요 증거 등 역사적 흔적이 모두 사라졌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리모

델링 사업이 지닌 의미는 각별하다. 전일빌딩은 호남의 언론 역사와도 함께 벌인 장소이기 때문이다. 특히 전두환 씨의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재판 중 중요 증거물로 꼽히는 헬기사격 흔적도 전일빌딩 곳곳에 남아있다. 만약 주차장으로 바뀌었다더라면, 전씨를 법정에서 세운 중요 증거 등 역사적 흔적이 모두 사라졌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리모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코로나19 확산에 전국이 비상인데 담양군, 혈세로 전 공무원 해외연수

예산 1억900만 원 책정
 중국·일본 등 시찰 추진

담양군이 전체 직원의 해외연수를 추진, 선심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지자체가 국민의 혈세를 직원 복지에 쏟겠다는 마냥 수용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해 한·일 무역전쟁과 미·중 무역분쟁으로 수출이 곤두박질하고,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역경제가 고사 직전인데도 외유성 해외연수를 추진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여기에 연수지역으로 중국·일본·동남아시아 등 '코로나19' 감염지역이 포함돼 논란을 키우고 있다.

20일 담양군에 따르면 군은 공직자 역량 강화를 위해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국외 선진지 산업시찰'을 추진하고 있다. 선진국의 행정제도와 생활인프라, 관광·문화·예술 분야의 우수시책을 군정에 접목해 행복도시 담양을 실현하겠다는 게 목적이다.

산업시찰은 코로나사태 진전 상황을 감안해 대나무축제가 끝난 뒤 5월에서 9월 사이 진행할 예정이다. 시찰 지역은 중국·일본·동남아시아(5일 이내)를 비롯해 미주·유럽·호주(9일 이내) 등 다양하다. 5~10명을 1개팀으로 구성하고, 팀별로 자율선택해 시찰을 다녀올 계획이다.

담양군은 이를 위해 예산 1억9000만원을 책정했다. 중국·일본·동남아 등은 1인당 80만원을, 미주·유럽·호주·뉴질랜드 등은 1인당 12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2017년 이후 국외 선진지 산업시찰을 다녀왔거나 근무 1년 미만 직원은 이번 산업시찰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담양군은 오는 28일까지 산업시찰 추진팀 신청을 받아 다음달 중으로 시찰팀을 선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외유성 국외 선진지 산업시찰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성과에 따른 우수공무원 연수가 아니라 직원 복지 차원의 해외연수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예산집행의 적절성 논란이 이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이 비상인데, 이로 인해 지역경제가 급격히 위축된 상황에서 전 직원 해외연수는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산업시찰 지역으로 중국·일본·동남아시아 등 코로나19 감염지역이 포함돼 논란을 키우고 있다.

담양의 한 주민은 "지난해 한·일 무역전쟁 등으로 시작된 경기침체가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치명적인데 공직자들이 지역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외유성 해외연수를 추진한다니 어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담양=노영환 기자 nyc@kwangju.co.kr

코로나19 확진자 국내 첫 사망

60대 경북 청도서... 지역사회 감염 초기단계 '비상'

53명 추가 확진자 총 104명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중 첫 사망자가 발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0일 오후 6시 기준 이날 국내에서 코로나19 환자 53명이 추가로 발생해 국내 확진자는 총 104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2, 3면> 방역 당국은 또 이날 경북 청도 대남병원에서 발생한 사망자(65)를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했는데, 코로나19 양성판정이 나왔다.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사망 사례다. 보건당국은 다만 "사망 원인은 폐렴으로, 사망에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는 조사 중"이라는 입장을 밝

혔다. 정부는 현재 코로나19가 방역망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지역사회 확산 초기단계로 보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부본부장은 20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지금은 지역사회의 감염전파가 시작되고 있는 초기 단계로 판단되는 만큼 검역을 중심으로 한 해외유입의 차단과 조기발견 노력 등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은 '경계'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하게 되면 정부가 휴교령, 집단행사 금지 등을 강제할 수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6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 ~ 2020]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4·15 총선 민주당 경선 격전지 분석	
목포, 해남·완도·진도	▶5면
북스 '책 세상'	▶14·15면
KIA 플로리다 캠프를 가다	▶20면

층층하게 쌓은 레이어로
 빈틈없는 탄력각을 세우다

설화수 자음생에센스

얼굴 구석구석에서 전에 없던 그림자가 보인다면
 이제, 탄력에 레이어를 쌓아야 할 때
 레이어가 쌓일수록 피부는 탄탄하게 차오르니까
 탄력을 층층하게 레이어링하는 고농축 진세니스피어™ 캡슐에너지로
 빈틈없는 탄력각을 세우세요

Sulwhasoo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SERUM
 자음생에센스

Sulwhasoo

·설화수 플래그십스토어 및 전국 백화점, 이모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www.sulwhasoo.com · www.instagram.com/sulwhasoo_official · 플래그십스토어: 02-541-9270 · 고객센터: 080-023-5454 (수신자 요금부담)